#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고난도 문항 해설 및 유사유형문제

## [공통문항]

### 1) 2024학년도 9월 모평 11번 – [기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①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②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③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④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 [문항해설]

> 독서는 독서이론, 사회, 기술, 인문 지문에서 출제되었으며, EBS 교재와의 연계가 높다고 체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재가 연결되었다고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구성되지는 않았다. 특히 '압전효과'에 관해 설명하는 기술 지문의 경우 지문 속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각 문항에 적용해 풀이하는 데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필요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11번 문항은 A와 B 두 알코올 감지기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비교해야 하는 문항으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확장해 사고하지 못하는 경우 풀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유형에 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단위로 사용한다.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 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출전 : 고3 2016년 06월 평가원 국어 19번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시키고자 한다.

[A]
- 입력 단자는 세 개(a, b, c)
- a, b, c의 현재의 가중치는 각각 $W_a=0.5$, $W_b=0.5$, $W_c=0.1$
-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B]
-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각각 $I_a=1$, $I_b=0$, $I_c=1$
-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1

①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②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
③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_a$, $W_b$, $W_c$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④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계나 설비 등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온도, 압력, 유량, 회전 속도 등의 물리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제어 기술이라고 한다. 제어 대상의 현재 물리량의 크기를 잰 측정값을 원하는 목표인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 출력되는 조작량을 조절하는 제어 기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물의 온도를 맞출 때 사용되는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흔히 활용된다. 이 장치에서는 ㉠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on되어 가열기에 전원이 공급되며, 원하는 온도보다 높으면 스위치가 off되어 가열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스위치가 on일 때에는 100%에 해당하는 조작량이 출력되고, 스위치가 off일 때에는 조작량이 0%가 된다. 가열기가 처음 작동될 때 수온을 올리기 위해 on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느 순간 수온이 설정값을 넘는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여 현재 온도를 설정값에 이르도록 한다. 수온은 압력이나 유량처럼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므로 수온이 상승하여 스위치를 off로 바꾸었다고 해서 금세 낮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면 설정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헌팅'이 발생한다.

on/off 스위치 방식은 오버슈트와 헌팅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on/off 스위치 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된다. PID 제어 방식은 P(비례) 제어, I(적분) 제어, D(미분) 제어를 모두 활용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 P 제어 방식, PI 제어 방식, PD 제어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P 제어는 설정값의 위아래에 일정한 비례대를 설정하여, 비례대 안에서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한다. 예컨대 P 제어가 활용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서 현재의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아래에 있을 경우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에 이를 때까지는 10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스위치를 on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다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보다 높아지면 비례 주기를 갖게 되는데, 각 주기에서는 스위치의 on과 off 동작이 반복된다. 즉, ㉢ 비례대 하한선을 넘은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는 on 시간이 off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5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on과 off 시간이 1 : 1인 동작이 반복된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보다 오르면 off 시간이 on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현재 온도가 비례대 상한선을 넘으면 off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P 제어를 활용하면 측정값을 설정값에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으므로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할 때보다 헌팅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P 제어에서는 ㉣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어도 설정값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가 설정값의 위 또는 아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잔류편차'라 한다.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P 제어가 활용될 때, ㉤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수록 가열을 위한 on과 off의 반복 동작이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잔류편차가 커지지만 헌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수록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잔류편차가 작아지지만 헌팅이 발생하기 쉽다.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어 측정값이 설정값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PI 제어의 적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으로, 적분 동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적분 시간을 통해 동작의 세기를 조절한다. 적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강해져 잔류편차를 짧은 시간에 없앨 수 있지만 헌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약해져 헌팅은 발생하지 않지만, 잔류편차를 없애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P 제어나 PI 제어만 활용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이때 D 제어를 활용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면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편차가 커지는데, PD 제어나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미분 동작의 세기는 미분 시간을 통해 조절하는데, 미분 시

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오버슈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미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강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오버슈트가 발생하기 쉽다.

§ 출전 : 고3 2017년 10월 학력평가 국어 34번

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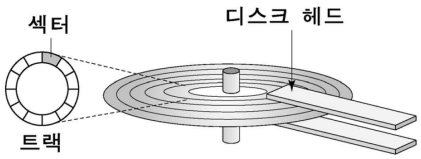
최근 강한 수증기 압력으로 진한 커피를 추출하는 커피 기계가 많이 쓰인다. 이 기계에는 물을 끓이는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 분출되는 수증기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증기압 조절 장치, 수조의 물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물을 보충해 주는 수위 조절 장치가 등이 장착되어 있다.

① 온도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가열기의 작동 초기에 on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온도 조절 장치에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온도가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해도 미분 동작에 의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③ 증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비례대를 좁게 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④ 증기압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현재의 증기압이 설정값 위로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스위치를 off로 바꾸어도 증기압이 설정값 아래로 곧바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⑤ 수위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on /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보다 헌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 하며, 이때 헤드는 '54 → 99 → 35 → 123 →15 → 66'과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순서로 이동하면 '54 → 66 → 35 → 15 → 99 → 123'의 순서가 되므로,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 → 35 → 15 → 0 → 66 → 99 →123'의 순서로 처리되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개선한 LOOK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다.

* 대기 큐 :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

§ 출전 : 고3 2012년 06월 평가원 국어 46번

1. 헤드의 위치가 트랙 0번이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3점]

①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SSTF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작다.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다르다.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⑤ 요청된 트랙 번호들에 끝 트랙이 포함되면, LOOK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 2) 2024학년도 9월 모평 27번 – [갈래복합]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문항해설]**

> 문학은 고전산문2편, 고전시가 2편, 현대시 2편, 현대소설 1편이 출제되었다. 그동안 고전소설 작품은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되어 왔으나,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현대소설 작품 '원미동 시인'이 연계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에 현대소설 작품이 연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가장 어려웠던 지문은 현대시 두 편과 고전수필로 구성된 갈래복합 지문이었으리라 예상된다. 고전수필 작품은 길이는 짧았으나 관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작품 이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어렵게 느껴졌을 문항은 27번으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다)에 적용해 풀이해야 했다. 올해 수능시험에 문학 작품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음을 염두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1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떠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ᄒᆞ고 져것도 드르려코
ᄇᆞ름도 혀려 ᄒᆞ고 ᄃᆞᆯ도 마즈려코
ᄇᆞᆷ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아ᄎᆞᆷ이 낫브거니 나조ᄒᆡ라 나을소냐
ⓐ오ᄂᆞᆯ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ᄒᆞ랴
이 뫼히 안즈 보고 뎌 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ᄒᆞᆫ ᄆᆞᄋᆞᆷ의 ᄇᆞ릴 일이 아조 업다
쉴 ᄉᆞ이 업거든 길히나 젼ᄒᆞ리야
다만 ᄒᆞᆫ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디여 가노ᄆᆡ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닉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ᄅᆡ로 취흥(醉興)을 ᄇᆡ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ᄅᆞᆷ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져츠락
을프락 ᄑᆞ람ᄒᆞ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넙고 넙고 일월(日月)도 ᄒᆞᆫ가(閑暇)ᄒᆞ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젹이야 긔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ᄂᆞᆯ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예서 더ᄒᆞᆯ소냐
이 몸이 이렁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 –

(나)
ⓒ연하(煙霞)의 깁픠 든 병(病)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밧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긔 성은(聖恩)인가 ᄒᆞ노라 <제3수>

ᄃᆞᆯ ᄇᆞᆰ고 ᄇᆞ람 자니 믈결이 비단 일다
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가락 ᄒᆞ난 흥(興)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ᄒᆞ노라 <제5수>

식록(食祿)을 긋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ᄒᆞ니
혬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ᄒᆞ건마ᄂᆞᆫ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ᄒᆞ노라 <제9수> –나위소, 「강호구가」 –

*바리연디:버려진 지.
*단정:자그마한 배.

(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 놓고 감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A]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은 놈만 골라 심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인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펑펑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인 이도 더러 있었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여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작지만 큰 산을 본떴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이고 깊이도 두어 자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이나 왕유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B]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쏴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 출전 : 고3 2018년 03월 학력평가 국어 37번

1.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물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충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A]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畫) 한 폭 좀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C] ┘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D] ┘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꼴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

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 출전 : 고3 2021년 수능 국어언매 23번

1.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안 보이어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엎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삽살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칡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다)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

다. 작은 산 너머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 출전 : 고3 2016년 06월 평가원 국어 38번

1.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는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① 현재는 없다. 기나긴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지나간다.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선택문항] _ 언매

3) 2024학년도 9월 모평 38번 – 문장-문법요소

38.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능동·피동 표현과 주동·사동 표현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 형이 동생을 업었다. ⓑ 동생이 형에게 업혔다.
ⓒ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 나는 동생이 책을 읽게 했다.

먼저 ⓐ, ⓑ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꿀 때, 서술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맞아요. 그럼 ⓒ나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

**선생님**: '-(으)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 ⓑ, ⓒ의 서술어에서 '-었-'을 '-고 있-'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와 ⓑ의 차이점이나 ⓐ와 ⓒ의 공통점을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고 있-'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군요.

① ㉠: ⓐ에서는 서술어에 '-으시-'를 넣어야 하지만, ⓑ에서는 '-시-'를 넣지 않습니다.
② ㉡: ⓒ에서는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꾸고, '읽혔다'에 '-시-'를 넣어야 합니다.
③ ㉡: ⓓ에서는 '동생이'를 '할머니께서'로 바꾸고,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합니다.
④ ㉢: ⓐ는 동작의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는 그럴 수 없습니다.
⑤ ㉢: ⓐ와 ⓒ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항해설]

언어와 매체는 단어, 문장, 음운, 국어사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단어와 관련해 '복합어'와 '직접구성요소'에 관해 묻는 문항,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문항, 피동·사동 및 높임표현, 시간 표현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체는 총 6문항이며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이들 문항 중 38번은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문항을 풀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항이다. 각 조건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선지를 분석해야 하므로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간단하게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해당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조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1

§ 출전 : 고3 2014년 06월 학력평가 국어 13번

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①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②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③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④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⑤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2

§ 출전 : 고3 2013년 10월 학력평가 국어 15번

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
> **어머니** : 방 정리를 ㉠ 하고 있구나.
> **아들** :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 내놓았어요.
> **어머니** :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 산 책은 어디 있니?
> **아들**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 줘 버렸어요.
> **어머니** :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 **아들** :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 **어머니** :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 '-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유시유형 풀어보기] _ 03

§ 출전 : 고3 2014년 09월 학력평가 국어 13번

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영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 **경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 **영희** : 응.
> **경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 **영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서 알아봐.
> **경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 **영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③ ㉢ :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쭤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참조 – '킬러문항 빠진' 9월 모평 국어...EBS "6월 모평보다 다소 어려워"
https://www.ajunews.com/view/20230906100806775
[2024 9월모평] 국어 "6월모평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워"(종로)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562

---

1) [정답] ③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 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다고 했다. 이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0.5×1+0.5×0+0.1×1',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 이때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인 1에서 출력값인 0을 뺀 '1'이 된다. 그런데 이 오차값의 일부가 입력 단자의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므로, [B]로 한번 학습시키면 가중치 Wa, Wb, Wc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퍼셉트론을 이용한 학습 단계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학습 단계를 마쳐야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으므로,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보기>에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을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으므로, 퍼셉트론이 1을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았다고 볼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이 반복될수록 출력값이 정답에 수렴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의 경우에는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정답인 '1'에 수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경우, 가중합은 입력 단자 a, b, c의 현재 가중치에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인 1, 0, 1을 각각 곱한 후, 이를 더하여 얻은 값 0.6 이 된다. 그런데 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1이 아니라 0이다.

2) [정답] ③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증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비례대를 좁게 설정하면 잔류편차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없앨 수는 없다. P 제어를 할 때는 잔류편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3) ① 정답률 57%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자. 총 5개의 트랙이 있고, 처리요청트랙은 1, 2, 3으로 가정한다. 탐색 시간이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선택지에서와 같이 트랙 번호가 내림차순이라면, 3, 2, 1이 되고, SSTF 스케줄링의 처리 방식대로 하면 이동 거리가 가까운 트랙 순이므로 0-1-2-3으로 이동한다. 탐색 시간은 3이라고 볼 수 있다. LOOK 스케줄링은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이동하므로 0-1-2-3으로 이동하며 탐색 시간은 역시 3으로 같다.
오답이 오답인 근거!
② 내림차순 3, 2, 1트랙이 있을 때, FCFS 스케줄링은 요청 순서대로 처리하므로 0-3-2-1 순으로 이동한다. 탐색 시간은 5라고 할 수 있다. SSTF 스케줄링은 디스크 양 끝을 오가므로 0-1-2-3으로 이동할 테고, 탐색 시간은 3이 된다. 즉,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③ 오름차순이면 1, 2, 3이 되고, FCFS 스케줄링은 요청 순서대로 처리하므로 0-1-2-3으로 이동해서 탐색 시간의 합은 3이 될 것이다. LOOK 스케줄링은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이동하므로 0-1-2-3으로 이동해 탐색 시간의 합은 같게 된다.
④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단, 이 선택지는 전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진다.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u>전제 1.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 끝까지 간 후 더 처리할 트랙이 없다면, 헤드가 디스크 끝까지 가지 않고 처리 요청이 들어온 트랙까지만 이동한다.</u>
이 전제는 제시문의 예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4문단을 보면 '54-35-15-0-66-99-123'과 같이 헤드는 0이라는 디스크 끝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66-99-123'라는 트랙을 더 처리한다. 하지만 여기서 트랙 199까지 가지 않고 123에서 멈췄다. 이는 처리할 트랙이 없을 때는 굳이 헤드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46번에 문제를 보면 '현대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라고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진행 방향에 처리할 트랙이 다 있고, 반대방향에 처리할 트랙이 더 없다면 굳이 헤드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므로 0-1-2-3으로 이동하며, 진행 방향에 처리할 트랙이 다 있고, 헤드의 끝인 4를 찍고 난 후 그 반대 방향에서 처리할 트랙이 더 없기 때문에 굳이 헤드의 끝인 4까지 이동하지 않는다. 즉, FCFS 스케줄링과 SCAN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게 된다.

<u>전제 2. SCAN 스케줄링은 헤드의 끝을 찍고 난 후 더 처리할 데이터가 없어도, 무조건 진행 방향의 헤드 끝까지 이동한다.</u>

이 전제는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라는 SCAN 스케줄링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 끝을 오가는 방식으로 0-1-2-3-4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탐색 시간의 합은 4가 되어 FCFS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이 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문 마지막 줄을 보면 LOOK 스케줄링은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줄인다고 했다. 또, 5번 선지를 보시면 다른 선지들과는 달리 ' 끝 트랙이 포함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끝 트랙이 포함됐을 때 LOOK 스케줄링과 SCAN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 합은 같으므로,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끝 트랙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두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과 5번 선지를 보면 끝 트랙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LOOK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이 짧아야한다. 아니, 최소한 같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전제 1대로 5번 선지를 계산해 보면 끝 트랙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도 두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은 같게 된다. SCAN 스케줄링이 0-1-2-3까지만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헤드의 끝인 4를 찍고 난 후 더 처리할 데이터가 없을 때, 헤드 끝을 찍지 않는다는 전제1을 따르면 이처럼 5번 선지와 충돌하는 결과가 나온다.

위와 같이 전제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은 헤드의 이동 조건에 대해 제시문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추론이다.

⑤ 요청 트랙 번호가 끝 트랙이 포함된 1, 2, 3, 4라고 가정하자. LOOK 스케줄링은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이동하지만 끝 트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0-1-2-3-4로 이동하게 되고, SCAN 스케줄링은 어차피 디스크 양 끝을 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1-2-3-4로 이동해 탐색 시간의 합이 LOOK 스케줄링과 같게 된다.

4) [정답] ⑤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세 가지 즐거움은 석가산을 만든 후 이를 완상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글쓴이가 석가산을 만들며 고충을 겪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가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글쓴이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지,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정답 ④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재구성

정답해설 : '포근하다'는 단어는 보드랍고 따뜻한 촉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갈밭에 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⑤가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짧은 글이다.

[오답피하기] ① ② ③ ㉮, ㉯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④ ㉮의 조 건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7) [정답] 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⑤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을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것인지, 시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⑤의 ㉠은 '형'이 친구에게 어떤 행위가 일어나도록 시킨 것으로 '사동표현'이다. ⑤의 ㉡은 '아기곰'이 '안김'을 당하는 것으로 '피동표현'이다.

오답이 오답인 근거!

① ㉠ ㉡ 모두 피동표현이다.
② ㉠은 피동표현, ㉡은 사동표현이다.
③ ㉠은 사동표현이고, ㉡은 피동표현도 사동표현도 아니다. 여기서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라는 단어이다. ④ ㉠ ㉡ 모두 사동표현이다.

8) [정답] ③
[출제의도]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산 책'에서 '산'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9) [정답] ②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② ㉡에서 주어인 '말씀'은 말하는 이가 높이는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있으시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주체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에도 '-시-'를 결합시켜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근거!

① ㉠에서 서술어 '준비하다'의 주체는 '경준'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③ ㉢에서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모시다, 뵈다, 여쭈다 등)인 '여쭈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당신'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